

김 영 수  
 (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ung-Soo

# 지방 분권화 시대 - 협회의 체제변화와 그 성장동력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the  
 structural change of our association  
 and its growth power

## 개혁의 물결과 지방분권화 시대

도도한 물결처럼 시대의 흐름 또한 거역할 수 없다. 나의 사고와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이 가거나 따라서라도 가야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통치의 논리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정권마다 개혁, 개혁하다보니 이제는 대세의 흐름이 되어 버렸고 와중에 지방 분권화를 외치고 나오니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네 바쁜 성미들에 불이 붙었다.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심리적 변화들이 우리사회 각 분야를 풍미하고 있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 우리 건축사들은 어떤가? 예외일 수도 없고, 또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시대조류에 보다 민감한, 어쩌면 한발 앞서가는 직업이 건축사가 아닌가. 변화보다는 개혁을 그리고 점진적이기 보다는 급진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한 걸음 앞서 살아가는 직업벽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회개혁에 대한 강한 불만은 자연이 협회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한 열망은 협회조직의 분할과 새로운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대세를 따르고 그에 걸맞은 협회체제와 조직구성을 조기에 완성하지는 말이다.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년 정기총회 시에는 반드시 정관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와 관련된 건축관련법의 일대혁신과 보수문제·업역확대 등 건축관련제도의 일대정비에도 협회의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그 청사진을 동시에 밝혀야만 될 것이다.

## 연합회체제로 가고 부설기관들을 조직화하자

지난 10월 1일의 임시총회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회원들의 불만과 새로운 협회의 물출변수가 얼마나 불신의 벽이 깊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건축설계업의 퇴조 현상과 함께 사회불안·경기침체의 여파는 총회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급기야는 임기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회장의 불신임과 감사의 퇴임이라는 불상사까지 야기시키고 말았다. 과거 같으면 응당 책임졌어야 할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질책은 커녕 정관의 정신에 위배된 시도회장의 이사선출까지 숫자의 논리를 앞세워 안전편을 위협하고 말았다. 전국건축사대회나 회관재건축 등 굵직한 협회 현안 문제들도 많았지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끝내버린 총회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최근의 협회총회를 지켜보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연합회체제의 출범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

해 보는 것이다. 방대한 본부체제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자율적 업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지방분권화의 시대정신에도 맞고 협회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의 총회동향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사실상이 연합회 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협회 내에서 연구·검토한 문건들이다. 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인 정부조직 하에서 우리가 연합회체제로 앞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감안해서 그 실행을 미뤄 왔을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 시행에 앞서 서울지분문제 등 다른 현안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이는 물론 안 된다. 동시에 협회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또한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무처의 일대개편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설기관들을 곧바로 조직화하자는 말이다.

### 이제는 건축연구소·연수원·정보센터를 본격 가동시키자

우리협회 본부의 기능은 사실상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처를 축소 조정하여 대부분의 인력을 부설기관으로 나누어 투입 하자는 안이다. 조정된 최소의 인원이 연합회 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무처리력들은 그 전문성에 따라 부설기관 업무에 분산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연합회로 가더라도 바로 그 연합회가 현재의 협회 본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와 연수 없이 생업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정보센터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전문단체가 발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연구목어나 다름없다. 우리협회가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97~98년도에 출범한 건축연구소와 건축연수원이 문을 닫고 있고, 가엾게도 건축정보센터까지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철석 같이 약속한 사안들이다. 재벌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감리업까지 진출하려고 할 때 3개의 부설기관설립을 전제로 빅딜(?)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

다. 지금 와서 어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핑계 삼아 우리협회의 성장 동력을 막아버린 일은 건축사연금제도를 깬 것보다 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출발하자. 건축사가 전문직 가운데서도 건강보험료 연체를 1위라는 최악의 생업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다. 연합회 출범과 때맞추어 새로이 문들을 열고 우리의 직업과 위상에 걸맞게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보자. 사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특히 건축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개개인의 주머니는 힘들지라도 우리 단체의 공동기금은 우리와 우리 후배들을 위해 재투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고 또 강구해야 한다. 건축과 건축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바로 건축연구소가 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두고 새로운 사조와 신 기법들을 익혀나가면서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설계현안과 감리과제 등 사무소 경영 문제들도 연수를 통해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자 법정연수, 라이선스 인증교육과 일반인 교양 강좌 등 할 일들이 태산과도 같다. 모두 건축연수원이 담당해 나가야 할 업무들이다. 건축정보센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전산화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내일에게까지 틀림없이 우리의 직업을 대신해 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서 표준화 그리고 디테일 출력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생업과 직결된 기구가 바로 정보센터다.

이 시기에 와서 무슨 이유와 변명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건축사와 협회의 사활을 걸어야 할 중대사다. 회비 없는 자립협회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서라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제변화에 따른 성장 동력으로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이 아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다.

### 더 이상 방관과 지체는 안 된다. 재촉하고 꼭 행동에 옮겨야 한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건축사의 몸과 마음은 편치가 않다. 우리만이 예외인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몸부림치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회원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협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는 한 죽기살기식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지 못 할 수도 있다. 회장 한사람의 협회가 아닌 것처럼 임원들만의 것도 아니다. 이제는 회원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개인적인 모든 요구사항들을 묶어 협회의 조직부터 먼저 활성화하고, 그 튼튼한 기반위에서 협회의 발전방향을 찾고 또 그 성장 동력을 적극 기동시킨다면 우리의 직업적 미래는 틀림없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때의 그 책임은 협회와 집행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며, 자부심과 사명감조차 망각한 회원의 더 큰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절박한 위기감에서 드리는 마지막 충언일 수도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우리 건축사임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어제의 건축사가 아닌 오늘의 우리 건축사임을 진솔하게 펼쳐 보여야 하고, 어제의 협회가 아닌 오늘의 우리 협회임을 극명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말이 많으면 거짓말도 많고 변명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오로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반드시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철저함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 떳떳하게 살아온 건축사였고, 당당하게 행동해 온 건축사협회였다. 이 정도에 절망하고 이만큼에 주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에게도 그리고 후진과 가족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다. 지체하는 몇 백배 만큼 그 고통은 더욱 누적될 것이며, 행동하는 수백 배만큼 그 희열은 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협회의 맨 앞에서 희생과 봉사를 맹세해 온 회장과 임원들은 이번의 위기극복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협회의 뒤에서 참여와 협조를 약속해 온 대의원들과 전국의 회원들은 금번의 성장 동력에 단 일초도 지체함이 없이 발동을 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충청권이 우리에게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건축사 모두가 하나 되어 사고를 행동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밖에 없다. 체제변화에 우리의 직업이 걸려있고 성장 동력에 우리의 생업이 달려있음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자. 시간은 잡는 사람의 것이고, 실패는 놓치는 사람의 것이다. ▮